

타이어 손상예방과 대책

송 영 기*

손상을 입은 타이어를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 생각지 못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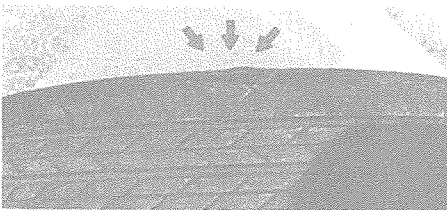
아직 새 타이어라 할지라도 손상을 입은 타이어는 위험하므로 아깝더라도 사용해서는 안된다.

대부분의 타이어 손상은 신경을 써서 주의를 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호에는 충격에 의한 코드절단과 평크난 타이어의 끌림에 의한 손상 예방방법과 그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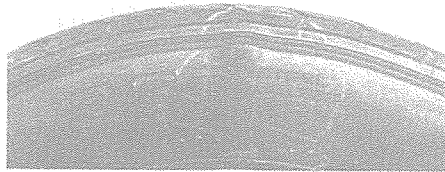
1. 충격에 의한 코드절단

(1) 타이어 손상상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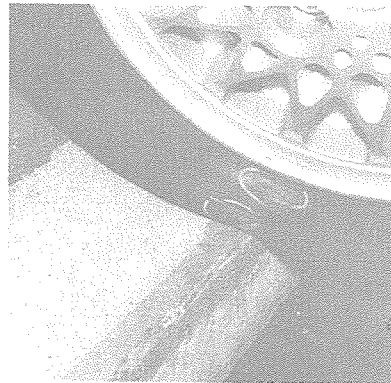
● 타이어의 사이드월 부분이 내부의 코드절단에 의해 부분적으로 팽창된다.



● 사이드월 면에 조그만 타박상이나 마찰상을 볼 수 있다(다만, 외부의 상처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).



(2) 발생원인



● 보도의 연석 등 장애물을 타고 넘을 때 발생한다.

*大韓타이어工業協會 技術課長

<77Page에서 이어짐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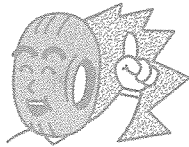
● 보도의 연석 등과 립 사이에 타이어의 사이드월이 끼었을 때 발생한다.

(3) 예방방법

● 도로 위의 돌기물이나 크게 패인곳에 주의하고 장애물은 가능한 한 피해 주행한다.

● 보도의 연석을 타고 넘을 때에는 충분히 속도를 낮추어 충격을 받지 않게 한다.

● 공기압이 낮게 되면 장애물과 립 사이에서 사이드월 부분이 끼기 쉬워지므로 주의하고 항상 적정공기압을 유지한다. 특히 편평비가 낮은 60사리즈 이하의 타이어에서 많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.



2. 펑크난 타이어의 끝림에 의한 손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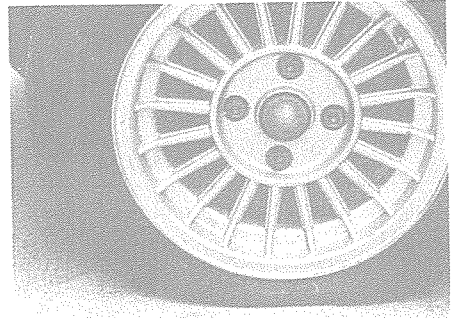
(1) 타이어 손상상태

● 타이어 사이드월 부분의 코드층이 갈기갈기 찢겨 흐트러져 있거나 또는 들떠 있거나 주름이 쳐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전원주에 걸쳐 코드가 끊기어 떨어진다.

● 사이드월부가 노면과 립에 끼어 비벼지게 되므로 원주방향으로 마모된다.



(2) 발생원인



● 타이어가 펑크난 상태 또는 펑크에 가까운 공기압으로 주행할 때 발생한다(펑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는 못박힘, 밸브불량, 립변형 등이 있다).

(3) 예방방법

● 우선 무엇보다도 펑크를 빨리 발견한다(못 박힌 것이나 외상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는 적절한 처치를 한다).

● 주행중 타이어에 이상을 느끼면 즉시 정차하여 확인하고 주행을 계속하도록 한다.

펑크를 예방하기 위하여는

● 공기압 점검을 자주 한다(주행전, 정차시, 주행후 등).

● 수리했던 타이어나 홈이 조금 남은 타이어는 특히 신경을 쓴다.

